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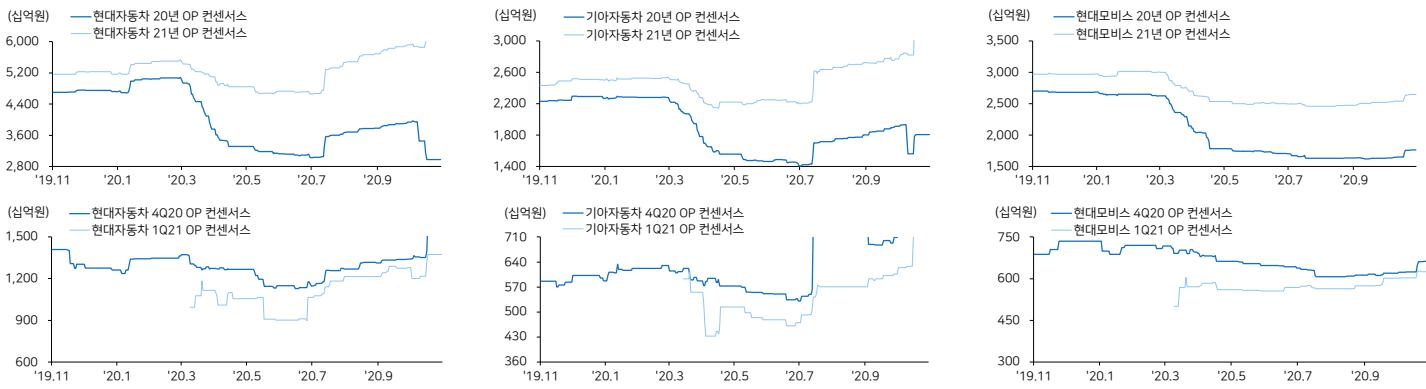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0.11.12(T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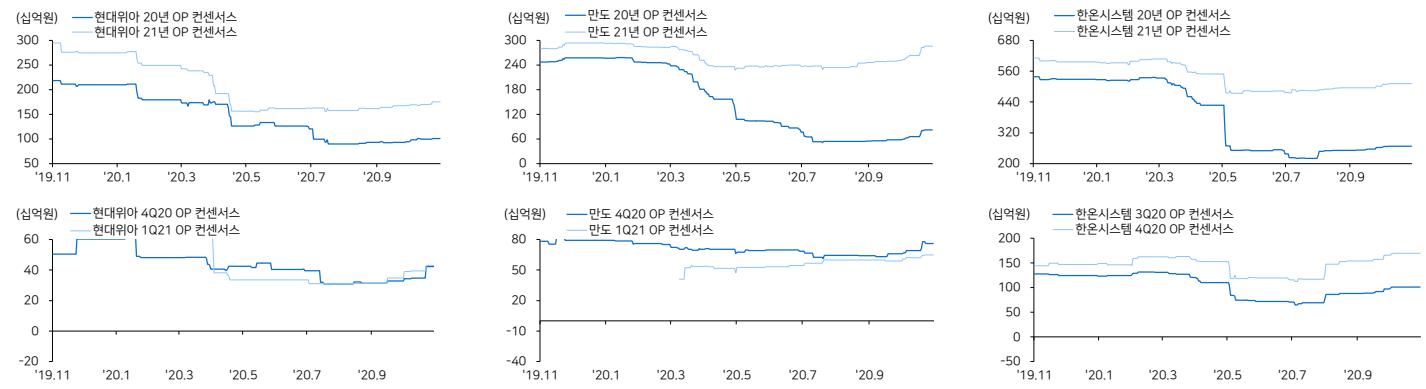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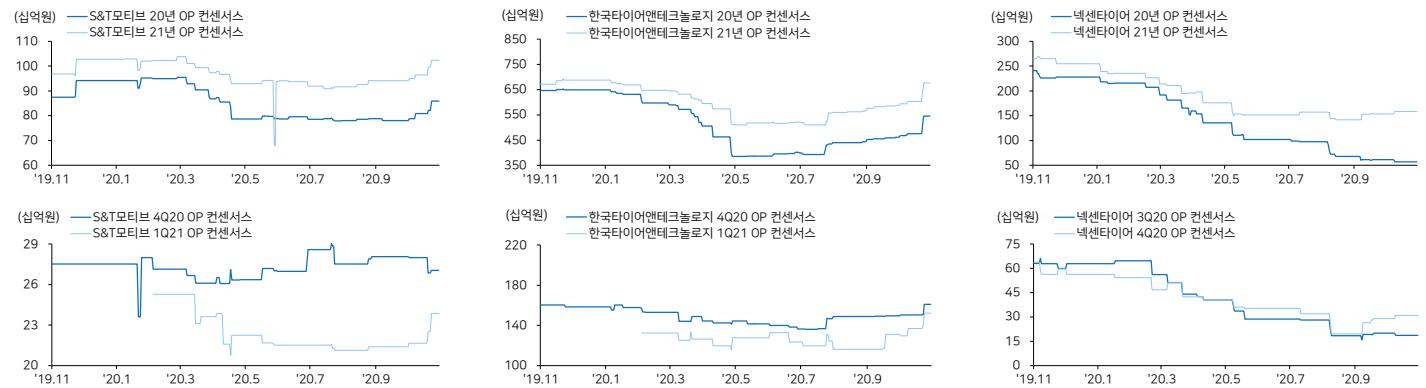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미국서 온라인 전략 협회 본 현대차, '친환경·신차'로 박차 (한국경제)

현대차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미국 시장 공략 카드로 '온라인 판매'에 이어 '친환경·신차' 카드를 꺼내들. 현대차는 연말 제네시스 브랜드 G80, GV80을 볼미 시장에 선보임. 내년 초에는 4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도 출격. <https://bit.ly/35jHLYv>

현대·기아차가 외부 수율 속도내는 까닭 (한겨례)

15년 이후 현대·기아차가 영입한 경쟁사 출신 임원은 최소 30명. 이는 해외 판매법인에 근무 중인 임원을 제외한 수치. BMW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VVW과 달리 출신이 각각 5명. 최근에는 니오의 출신 요한 페이준과 바오닝 출신 리펑 등 중국 비중도 증가. <https://bit.ly/35mMIXd>

바이든, '메이드 인 USA' 더 강조할텐데…현대 전기차 미국서 생산? (중앙일보)

차기 미국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맞춰서면 국내 기업 간 상황이 갈리고 있을 듯. 미국에 전기차 생산 라인이 없는 현대·기아차의 범법은 복잡해진 반면, 이미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인거나 짓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은 훤칠 유리한 입장. <https://bit.ly/3lnphub>

하늘을 나는 자동차, 진짜 하늘에 떴다…국내서 '드론 택시' 첫 비행 (JTBC뉴스)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드론 택시·드론 배송 실증비행 행사를 열었을 중고 드론업체인 이항사에서 개발한 2인승 유인 드론 택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상공을 날았음. <https://bit.ly/32AJ4ai>

11월 초 수출 20% 급등…반도체·자동차 호조 (비즈팩트)

이달 1~10일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도 12% 이상 증가.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년 새 31.9% 증가. 무선통신기기와 승용차 역시 8.3%, 33.3% 증가. <https://bit.ly/3kvD3SN>

기아차,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출시…4인승은 12월에 (ZD넷코리아)

기아자동차가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과 9인승 가솔린 모델을 11일 출시. 기대를 모으고 있는 4인승과 디젤 엔진이 탑재된 모델은 다음달 출시될 예정. <https://bit.ly/3ImE54j>

자율주행 전기버스 나온다…LG유플러스, 내년 3분기까지 실증 진행 (아이티비즈)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희)는 블루스페이스(대표 크리스틴 문), 우진산전(대표 김영창), 메트로풀러스(대표 김태호) 등 국내외 전문업체들과 손잡고 '자율주행버스' 사업에 본격 나선다. <https://bit.ly/3pk8BrU>

불보자동차, 2020 유럽연합 CO2 배출 목표 초과 달성 (뉴스1)

불보자동차와 자회사 폴스티아 유럽연합(EU)이 규정한 2020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11일 밝힘. 이에 따라 불보자동차그룹은 포드와 폴링(Pooling) 협약을 통해 잔여 탄소배출권 거래를 결정. <https://bit.ly/2UmD2p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